

# 진흥회 활동

## '96 한국전자전, 성황리에 폐막



통상산업부 주최,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 구자학)의 주관으로 지난 10월 7일 막이 오른 제27회 한국전자전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EC, 동남아 등 16개국의 우수 전자업체들이 열띤 경연을 벌인 결과 국내외 합쳐 23만 1,100명(외국 바이어 5,216명 포함)의 관람객과 14억 5,000만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리며 성황리에 10월 21일 폐막 되었다.

금년으로 스물 일곱번째를 맞이한 한국전자전은 세계 경기 불안정 속에 국내의 기업환경 악화 등 우리 전자업계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현실이었던 바, 우리의 우수한 기술제품과 세련된 디자인에 끌린 해외의 유럽 바이어 및 구매단 그리고 국내의 업계 관계자와 일반 관람객, 학생들까지 대거 몰려들어 지대한 관심을 보여 우리 전자산업의 미래를 한

층 밝게 해 주는 자리매김이 되어 그 어느때 보다도 값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세계 5대 전자전으로 그 위치를 다시한번 입증 하였다.

특히 이번 한국전자전은 5,216명의 해외 유력 바이어들이 내한하여 수출 상담을 벌였는데 국가별로 내한 바이어를 보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1,998명, EC를 중심으로한 유럽지역이 1,220명, 미국 등 북미지역이 1,075명 중남미지역 418명, 중동 지역 256명, 대양주지역 162명, 아프리카 지역 87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헝가리 등 동구 국가들과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의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터키, 이스라엘, UAE 등의 중동 국가들, 남아공화국 등의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내한하여 참관 및 상담을 벌였다.

국가수로는 64개국으로 우리 전자산업의 시장 다변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이번 한국전자전은 아시아 지역의 유명 전자전 일본전자전이 10월 1일부터, 대만전자전이 10월 12일부터, 홍콩전자전이 10월 15일부터 개최되어 해외바이어들이 세계적 전자 생산기지로 부각되고 있는 동남아 전자산업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품질, 기술, 가격 등에서 선택의 다양함을 제공하면서 바이어 유치의 효율성이 돋보인 전자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한국전자전의 최대 첨단 기술제품인 DVDP, PDP TV 등이 전시된 곳에서는 우리의 기술력에 탄성을 자아내기도 한 세계 각 지역의 외국 바이어들은 전시품목 전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지역별로는 최근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으로

경협을 확대해 가고 있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 국가들의 바이어들이 지난해 보다도 많이 내왕했으며 인도,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 지역도 산업화의 열기로 활발한 구매 상담을 벌였다.

이들 바이어들은 우리 상품의 최대 수출지역인 아시아가 제일 많고 유럽, 미주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별로 보면 미국, 일본, 홍콩, 대만, 독일, 브라질, 인도, 스페인, 태국, 싱가포르 등의 순으로 상담을 벌이고 있으며 중동과 중남미 그리고 대양주,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꾸준히 찾아와 정치·경제 안정화와 함께 주요 바이어군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이번 한국전자전 기간 중 행사로 개최된 “세계적 전자산업 경영 전략가 초청 강연회”에서는 전자·정보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 250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이날 초청 연사인 히타찌(日立) 미따가쓰시게 회장은 “21세기 한국의 전자·정보산업은 선진국 진입을 계기로 세계와 겨룰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과 연구개발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번 한국전자전은 국내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된 속에 개최되어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어 앞으로의 우리 전자산업의 미래를 밝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TEC TC-WG2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샵 개최

본회의 형명등록과 예서는 96.10.21일에서는 22일까지 경주교육문화회관 회의실에서 LG전자(주) 등 10명이 모인 가운데 IEC TC-39WGZ 대응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등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회의 내용은

IEC TC- WG2 7개 항목(Ball Impact Test 등)에 대한 기술적 협의

- ① Ball Impact Test의 업체별 CRT 크기 및 타격 Point 선정,
  - ② Missile Test, GLASS 및 CRT 유효화면 크기에 대한 각사별 Test Data를 결정,
  - ③ Tape 업체에 대한 질의사항 결정(접착제 성질 등 4개 항목)와 한·일 센타간 정기교류회 참여 여부 토의,
- '97년도 센터운영방향 등을 폭넓게 협의 하였다.



## 주요업체 수출 간담회

본회 국제부에서는 지난 10월 14일 팔레스호텔에서 추준석 통상산업부 차관보를 비롯 대덕전자등 12개 업체가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는 수출이 당초 1,400억 \$에서 1,300억 %로, 수입은 1,490억 \$로 수정, 전망되어 190억 \$ 무역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9.3 대책에 이어 ‘산업경쟁력 10% 늘리기’등의 다양한 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업계의 애로 등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개최되었는데 전자기기과장의 1차수출촉진대책 등 정부의 대책 설명과 업계의 수출동향설명, 업계의 애로건의 등 수출촉려 활동강화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

## 유통시장 개방에 대한 가전업계 대응방안 협의

---

본회 가전과에서는 최근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의 국내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가전시장도 빠른 속도로 양판점화, 혼매점화로 진전될 것으로 사료되어 그 대책을 협의코자 10월 17일 본회 대회실에서 대우전자 등 10명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내 유통업의 경우, 고금리, 고임대비용, 고임금 구조하에서 외국의 대형 유통상과 경쟁하고 있으며, 고지가, 고금리하의 구조속에서 진출한 할인점 형태는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대형점 형태인 현 유통업의 실태와 중소 영세 대리점도 유통근대화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건의, 양판점 거래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실시, 가전 전속대리점과 할인점과의 서비스 비교조사 실시(가격 및 서비스 등), 제조업이 유통업 진출을 위한 규제완화 건의 등의 경쟁력 확보대책을 폭넓게 협의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소 전속 대리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 연차적으로 홍보, 건의할 사업을 시행키로 하였다.

---

## 폐가전품 처리대책 수립 임원 조찬간담회

---

본회 환경과에서는 10월 23일 팔레스호텔에서 대우전자 박창병 상무를 비롯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가전품 위탁처리 관련 협의를 하였다.

협의내용은 또한 가전 3사 물류 담당임원들과 재활용전문업체 인허가 취득을 위한 일정 유예기간 요구, 법령상의 폐가전품의 분류등 명확한 유권해석등의 내용으로 환경부 폐기물 자원국장과의 면담을 추

진키로 하였으며, 기타 논의내용 폐가전품 공동 사업 관련 위원회를 구성키로 협의하였다.

- 구성 : 가전3사 임원 및 담당부장
- 역할 : 정례회의를 통해 사업방향 조정 및 자문

---

## 오디오 업계 현안문제 협의를 위한 조찬간담회

---

본회 가전과에서는 최근 오디오산업이 시장개방, 중국등 후발개도국의 추격등에 따른 대외경쟁력의 약화, 수출 감소 및 내수시장의 정체등으로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어 오디오 업계의 활성화방안 등 현안문제 협의를 위해 10월 23일 팔레스호텔에서 통상산업부 전자부품 과장과 인켈등 오디오 업계가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최근 오디오업계의 동향이 동남아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리시버 정도임에 따라 대부분의 오디오 업계가 해외이전 및 사업다각화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최근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오디오업계의 애로사항 건의로

### ① 특별소비세의 문제점 개선

특소세의 인하, 폐지와 과세표준의 산정기준 개선(국내제품 : 제조원가+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외국제품 : CIF가격) 특소세 납부시기 개선등을 지적하였으며

### ② 수출업체에 지원 확대

무역금융의 Rate를 현실적으로 환율과 비슷하게 높여줄 것과, 제3국 생산분의 수출 보험료의 조정도 건의하였다.

오디오산업에 대한 오디오 업계의 명백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며 특소세의 인하및 개선문제를 특소세 납부실적 등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개선토록 노력할 것을 협의하였다.